

[추모글]



평생 ‘인간존엄’ 화두 삼은 스승... 최고의 헌법학자 김철수 선생님

제자 성낙인(前 서울대학교 총장)



김 철 수

시대의 사표 김철수(사진)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공법학회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라 캠퍼스의 반정부 데모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없이 야당의 유명 국회의원을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하자 학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를 격려하셨습니다. 저도 때로 학생에게 화를 내려들면, 평생 제자를 야단치지 않으신 선생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넘치는 선생님의 제자 사랑 에피소드는 어느새 추억으로 맴돌게 됩니다.

선생님은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학생에게도 언제나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저도 제자에게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을 하도록 권합니다. 명절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면, 반드시 답례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 삼가게도 됐습니다. 특히 다른 대학 학생이 찾아와도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저명한 교수의 따뜻한 인간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은사나 선배에 대한 배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유기천 前 서울대학교 총장기념재단의 출범 기반을 다지셨고, 서돈각 前 학장님 문안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민주화의 시대정신(Esprit du temps)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유신과 5공 시절에 저서가 몰수되고 정보기관에 연행되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헌정 파괴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올곧은 선비 정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작 선생님 자신은 현실참여 유혹을 뿌리치면서도, 헌법과 행정법 학자들의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장으로서는 법치주의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실사구시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인간존엄'과 '인간의 권리'를 학문적 화두로 삼으셨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은 가시는 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화 이후 한국 헌법의 세계화에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독일·미국·일본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신 우리 시대 최고의 헌법학자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젊은 연구자를 위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인권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래전 워싱턴DC소재 조지타운 로스쿨 초빙교수로 계실 때, 미국 로스쿨의 현황을 제자인 저에게 직접 안내해 주시던 백발의 노교수님 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성 낙 인